

산란용 토종닭 산업화 ‘첫발’...달걀, 지역 특화 시장 연다

-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 21일 경북 영양군 시험 농가 찾아 사육 상황 점검
- 국가 R&D 기술·영양군 인프라 결합...2030년까지 소규모 농가 50호 육성

※2026. 7. 21.(화) 10:30~16:00, 경상북도 영양군 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 현장 컨설팅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경북 영양군이 산란용 토종닭을 활용한 프리미엄 계란 시장 개척과 지역 특화 모델 구축에 뜻을 모았다.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은 21일 경북 영양군의 산란용 토종닭 현장시험 농가를 방문해 사육 현황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오도창 영양군수와 만나 토종닭 시장 확대와 프리미엄 토종란을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지역 특화 상생 모델로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영양군이 2023년 10월 체결한 '산란용 토종닭 개발·보급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축산원은 올해부터 '산란용 토종닭 사양관리 기술 확립 연구('26~'30)'에 착수했으며,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R&D 역량과 영양군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방침이다.

영양군은 2030년까지 소규모 산란계 농가 50호(약 40만~50만 수)를 육성하고, 생산된 달걀의 유통을 위해 '공공형 계란가공센터(EPC)'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영양군의 청정 이미지를 담은 브랜드 계란을 이커머스 및 공공급식 등 광역 유통망으로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축산과학원의 기술과 영양군의 인프라를 결합해 프리미엄 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도 “이번 현장 소통은 국가 R&D와 지자체 인프라가 결합한 선도적 상생 모델의 첫 단추”라며 “영양군 토종닭 달걀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현장 맞춤형 기술과 마케팅 전략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산란용 토종닭 농가사육 시험 현장 방문 일정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경운 (033-330-9510)
		담당자	연구사	추효준 (033-330-9540)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참고**산란용 토종닭 사육 능가 현장 방문 일정표**

- ☐ 일 자: 2026. 7. 21.(화)
- ☐ 장 소: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요로 218-136(쿠쿠닭농장),
영양군 군청길 37(영양군청)
- ☐ 일 정

시 간		내 용
10:00~10:30	30	◦ 영양군수 면담
10:30~11:10	40	◦ 이 동(영양군청 → 사육 능가)
11:10~11:50	40	◦ 사육 현황 점검 및 의견 수렴